

1. 문

	경	주체	→	상황	→
	① 화자 ②	(대개 : 이상		① 긍정 ② 비판	
문학의 하고 다. 하지만 제시한	험 주체가 전혀 같은 이해하면 수	상황에서 어떤 다. 즉, 우리는 의 입장에서는	고 있는가?'이다. 해할 때 자아의 세계	고 있는가?'이다. 해할 때 자아의 세계	어떻게 화 한
첫째, 짧은 고 있 REM	누구인지 경우 대부분이 혼재 에서 경험 자가~'라는 가령 '화 는지만 판단해서는	인하자. 경험 험 주체는 '화 있는 경우가 많 파악하는 것은 를 판단할 때, 러워하는 대상 고 '화자가' 부	자가 될 수도, 화자 되겠지만, 긴 가사	자가 될 수도, 화자 되겠지만, 긴 가사	어떻게 화 한
둘째, 문 민은 무 세계를 를 잡아 REMAR	침표 단위 국 '모든 다는 의사 . 판단할 때 . 그리고 어려운 선	고 '정서, 태도, 은 내면세계대로 셈이다. 그냥 좀 더 면밀하게 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이스하게	각각 표시하면서 읽 동한다.' 그럼에도 를룰루 읽을 것을	각각 표시하면서 읽 동한다.' 그럼에도 를룰루 읽을 것을	어떻게 화 한
셋째, + 하자. 상황에 대한	는 명확하 자아의 반	그 장점 또한 분 가장 분명하게	품을 읽고 단순하 있다.	품을 읽고 단순하 있다.	(+) 이정도로라도 정리

2. 문

문학개
아들 풀

적인 수준 안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다. 그러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**성립조건**을 알

이전에
개연적
된다는
확실성
의 원
판단하

원리를 알고 들어가야
문학' 또는 '시가'라면 9
있지?'가 아니
를 제시했다
했다면 극명하게 누구나 파악 가능한 부분을 근거로 두고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먼저
리하다.

단하지 않아도
이다.
것이다. 일단 확실성

- 대비 : () 상반 (cf.색채 : 둘 이상의 색채어/) / ex. 좋다-나쁘다, 어
- 색채대비 : 이상의 색채어 (명시 으로 색채어가 제시되어야 함/'상반'의 님.)
눈 위에 떨어진 울 (대비X)

- 연쇄 : A /CD
[ip] '연 통해~' 선지가 나오 인 (연쇄c
- 대구 : 문 조의
[ip] '대
e 연은
e 은 말 (문장 의 유사성 n 유사)

우문현답 우리들의 질	현우가 답	지어 지 않 다. 따라	지적으로 부담을	?	하지 않는다. 이 반복되는지	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 요가 없다는 것이다.
기 때문	히 '반복'					

- 영탄 : 감 고조시 수사법 (설의, 감탄형)
[영탄이 면, 앞 은 절제된/담 볼 수 있다. '절제된/담담한 어조'를
- 물 련 그냥 으면 된
- 설의 : 답 해진 전 : -고 -가, -나다 찾
- 반어 : 평 입장에 개념. 기>와 협력할 **판단.**

- 도치 : 문 조의 순
- 점층/점강 시로 기 확실하게 준다.) ex. 때 , 무너뜨린다
- 비유 : - -처럼 으로 ' 거니' 생각할 것, 비유를 사용하여~ =
- 의인 : 인 아닌 도와 감 나타나야함. (세계의 자아화로 판단할

- 공감각 : 개에 감 푸른 종 리 (종소리 르다.)
- 복합감각 2개에 / ex. 간 내복이 다. (내 깡다./내 럽다.)
- 입체감 : 표현 등 2개 이 or 변화 (공감각/ 작은 입 수 있다.)

- 지향 =
- 성찰 :
- 반성 :
- 내적갈

직 = 지향 (화
세계를 관찰하는
을 드러내어 인
현실의 괴리 ('

는 것이 화자

이 아님/현실

면 내적갈등)

우문현
우리들의
Q. 왜 현
A. 당연한
예를
구'라
괴리가

답하
이 제 내적갈
이 면 이
친구 완벽한
. 이 따로
.

?
실 상황이 이상
때 옆에 친구가
조금이라도 맘

정하게 되는 것이다. 쉬운
물어보면 그냥 '내 여자친
것이다. 즉 이상과 현실의

- 승화·초

황은 변함이

으로 극복하는

- 시간의
- 공간의
- 선경후
- 원근 :
- 상징/(
- 시적 긴
- 서사적
- 분위기
- 생동감
- 세계 :
- '화자의

서) 대상의 변
의 변화
원리 (고전시
리 / ex. 먼
/감각 표현 :
사법 시적
상황 찾기 (개
황'으 치환해
무 (방언,
계라 워딩이
대 등과 같

ex. 나무 : 푸

- 겨울 나무

후정)

' 생각
으로 판단)
보야 함)

제시되어야
자가 지향하

체크하자.

3. 실전 문학 Tip

지금부터는 실전이다. **실전은 본질에서부터 기인한다**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.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추가해나가고 모의고사 때마다 써먹으려고 노력하자.

① 현대시 실전 Tip

현대시에서 독해가 꼬이는 이 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
 i) 독해가 꼬이는 경우 '서술 사어' 순으로 톤을 파악해주자. 특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의 톤 술어의 톤을 바탕으로 대상에게 톤 는 느낌으로 톤 조절을 하자

ii) 현대시는 으로 <보 읽고 작품 아니라, <보기>의 관 집어 씹우 읽어야 한다. <보기>와 협력하며 서 첫 문단 다루듯이 넘버링, 대비 한다. 단순히 <보기> 이를 바탕으로

② 고전시가 실전 Tip

고전시가에서 독해가 꼬이는 이 다.
 i) 고전시가 독해가 꼬이면 현 '를 통해서 단 . 가령 이번 6평에서 출제 된 유 의 '물외의 벗 업 '라는 문장을 벗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는 물 기 즐겁다는 서술 긍정적으로 인 상임은 알 수 있다. 어차피 과한 요구하지 않으므로 하다.

ii) 고 주제와 형식이 적인 부분을 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. 부분의 고전시가가 정도의 한정 고 있으므로 할 때, 대 비코드 를 이분법적으로 가령 많은 작 출처관(자연 대한 작 품의 어를 볼 때 이게 금님 충성에 한쪽으로 물고가는 것이 1 리하다.

iii) 같 에서 고 도 제한되어 있 , 대비, 설의, 영탄' 등의 수사 전시가에 서 없 다. 따라 뒹두고 다른 선 저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 캉법이다.

③ 후순위로 판단할 것들

2-3번에서 언 지를 때도 어야 효 빠르 처리할 다.
 현대시나 고전 정적 화자/ 방식, (기, 영, 감각 미지, 상징, ' 등은 시 바뀌야 한다. "가 "어딘 관, 어디 "가 야 한다 히 감각적 시각적 표 현은 95%이상 밖에 느낀걸 쓰는 이다. 이다. 말 건 는 방식 화체(≻존댓 어' 등은 이외에도 조금 락에서 귀로 핀 이 있다. 말 건 는 방식 화체(≻존댓 어' 등은 정확히 판단하 울뿐더 가원에 정의하 개념 이므로 판단하는 리하다.